



서울, 테마산책길 | 전망이 좋은 길 | 강서구

개화산 둘레길

서울에서 농촌의 황금빛 들판을 감상하다



걷는구간 개화산자락길 장애인주차장 → 북카페 → 하늘길전망대
→ 신선바위 → 아라뱃길전망대 → 개화산전망대

걷는거리 2.1km

소요시간 1시간

추천시기 사계절

난이도 ★★ 중급코스

개화산은 강서구 방화동에 걸쳐있는 최고 128m 높이의 야트막한 산이다. 그러나 시야가 사방으로 트여있어 하늘길과 뱃길, 황금빛 가을 들판과 서울의 빌딩 숲, 그리고 한강, 남산, 북한산 등 조망 위치에 따라 다양한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다.

개화산 첫번째 조망 명소인 '하늘길전망대'에서는 김포공항과 김포평야가 내려다보이는데, 이름에 걸맞게 비행기들이 뜨고 내리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이다. 다음 조망 명소인 '아라뱃길전망대'로 가다 보면 '신선바위'를 만난다. 바위 위에서 잠시 멈추고 고개를 들면 울창한 소나무 숲 너머 저 멀리 김포평야의 지평선까지 내려다보인다. 농촌의 가을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개화산 최고의 전망대로 손꼽을만 하다.



개화산은 조선 후기에 작성된 <양천읍지(陽川邑誌)>에 따르면 신라 때 주룡(主龍)이라는 도인이 이 산에 머물렀다하여 주룡산(駐龍山)이라 하였고, 주룡 선생이 돌아간 후 기이한 꽃 한 송이가 피어 개화산(開花山)이라 불렀다고 한다. 또한, 봉화를 받는 산이라 하여 개화산(開火山)으로도 불리었는데, 조선 초기 봉수대가 설치되어 전라도 순천에서 올라오는 봉화를 받아 남산 제5봉수에 전하였다고 한다.



세 번째 조망 명소인 ‘아라뱃길전망대’에서는 하늘길, 논두렁에 이어 물길을 볼 수 있다. ‘봉화정’이라는 이정표를 따라 정상에 올라가면 마지막 조망 명소인 ‘개화산전망대’가 나온다. 방화대교, 행주산성이 보이고,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에 등장하는 난지도, 목면산(남산) 그리고 멀리 북한산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개화산전망대 바로 아래에 ‘약사사’가 있으니 하산하는 길에 둘러보길 추천한다.

개화산전망대에서 바라본 방화대교



